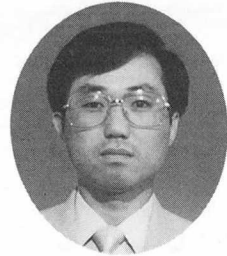




설사병 이후의 사양관리



이 오 형 과장
(미원농장 방역팀장)

양돈농가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크나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설사병이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 설사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은 4월까지의 마음놓을 수 없으므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만 설사병으로부터 돼지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설사병이 지나간 농장은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설사병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직접적인 피해인 자돈의 폐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돼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설사병으로 면역기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이 우려되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상시의 관리보다 더 정성을 들여 관리를 해야 한다.

1. 임신모돈

임신 말기에 설사를 했던 모돈은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여 생시 자돈의 체중이 적을 수 있으므로, 사료섭취를 도울 수 있는 첨가제나 영양제를 첨가하여 사료섭취량 증가에 노력해야 한다. 임신돈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당분간 포유돈 사료로 교체하여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영양수준을 영양수준이 높은 사료로 맞춰서 급여해 준다. 개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식욕부진 상태가 장기간 갈 경우는 개체치료를 실시해 준다.

2. 포유모돈

분만후 사료섭취량 증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설사병을 앓고 난 모돈은 사료섭취 상태가 불량하여 저유증이나 무유증이 발생될 수 있다. 저유증이나 무유증이 발생하면 설사로 인한 사고와 함께 모유섭취 부족으로 위축 허약돈이 발생하여 피해를 가중시킨다. 저유증이나 무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시 분만이 종료됨과 동시에 옥시토신과 대사촉진제를 주사해주고, 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열제를 주사해 준다.

분만사 입주부터 이유까지 별도의 비유촉진제

를 사료에 첨가해주고 유방염이나 자궁내막염 예방을 위해 자궁세척 및 항생제 주사도 실시해 준다. 사료섭취량을 돕기 위해 분말포도당이나 영양제를 첨가해 주며 일반포유돈 사료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포유돈 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이유모돈

정상적으로 충분히 포유를 시키고 이유를 하면 대부분 발정이 잘 오는 시기이지만, 자돈 사고가 많아 충분히 포유를 시키지 못하고 이유가 된 모돈은 과비상태여서 정상적인 발정이 오지 않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료급여량을 철저하게 제한하여 급여한다. 사료를 제한하여도 체중이 빠지는 것은 어렵지만 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료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사료를 제한급여하기 위해서는 군사 돈방보다는 스톨이나 반 스톨사에 수용하여 사료를 급여해 준다. 이유된 모돈이 분만후 3주 이상이 되어도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자궁회복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호르몬 처치를 해 준다.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PMS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르몬제제를 너무 일찍 사용하였을 경우 자궁 회복이 안된 상태여서 수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궁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호르몬제를 사용해 준다.

4. 웅돈

교배에 사용하고 있는 웅돈이 설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설사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하여도 1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웅돈 활력에도 좋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준다. 사료급여시에

비타민제나 기타 영양제를 첨가해주며, 교배시에는 고농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제제를 주사해 준다.

5. 포유자돈

1주일 이전 자돈은 대부분 폐사되거나 심하게 위축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설사병을 앓고 난 어린 자돈은 별도로 수용하여 비유량이 양호한 모돈을 양모로 선택하여 재포유를 시켜준다. 또 고단위 영양제, 면역제제 등을 주사해 주며, 2차적인 세균성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주사해 준다.

입질사료에도 대용유를 혼합하여 급여해 주고 소화제, 영양제를 첨가해 준다. 탈수가 심한 개체는 복강주사를 통한 탈수를 교정시켜 준다. 이유는 충분히 입질훈련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일 때보다 이유를 늦게 실시한다.

돈방은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관리하여 포유자돈의 환경조건을 쾌적하게 해 준다. 허약한 상태이므로 추위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질병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시설을 갖춰 보온에 만전을 기한다. 요즘 보온시설들(보온매트, 보온등, 보온상자 등)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농가실정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만돈사의 실내온도는 20℃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난방기를 설치한다.

6. 이유자돈

포유기간에 설사병을 앓았던 자돈은 이유후 설사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료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유는 입질훈련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실시하고 일령을 기준한 이유보다 자돈의

상태에 따른 이유를 한다. 이유가 되면 포유기간보다 돈사의 온도를 높게 해 주며 사료급여는 최소한의 양으로 하여 1일 5회 이상 자주 급여하여 절대 과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유자돈 설사증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유된 자돈에 항생제, 생약제, 소화제 등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급여해 주며, 설사가 심한 개체는 별도로 개체치료를 한다.

이유기간중 설사를 했던 자돈은 위축, 허약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용하여 집중 관리한다. 위축, 허약돈은 고단위 영양제, 항생제를 주사해 주며, 사료는 갓난이사료를 연장 급여한다. 이유자돈 단계에서 갓난이 1호에서 2호로 사료 교체가 되는데, 영양 수준이 높은 갓난이 1호 사료를 정상적일 때보다 연장급여하여 사료교체 시기를 늦춰서 발육지연을 예방해 준다.

7. 육성 비육돈

설사를 앓고 난 후 발생하는 것은 발육 정체, 사료요구율 저하 등이며, 2차적으로는 호흡기질병 발생이 유리하게 된다. 발육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료급여시 한 단계 영양수준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주거나, 현재 급여하고 있는 사료를 연장급여하여 영양을 보충해 준다.

2차적인 호흡기질병이 비육 전기간동안 발병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보다 환기, 보온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기온이 올라가는 한낮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고, 밤에는 돈사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섯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문단속을 해 준다.

또한 보온을 유지하면서 유해가스가 차지 않도록 배기팬을 설치하여 공기순환을 시켜 준다. 돼지를 이동할 때는 1주일간 특별관리(음수 투여, 사료첨가제, 사료급여관리 등)를 하여 이동후

스트레스를 최소로 해 준다.

8. 돼지 이동시 및 사료 교체시 관리법

- 음수투여 : 음수통에 수용성 항생제나 영양제를 혼합하여 2~3일간 급여
- 사료첨가제 : 호흡기질병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 항균제를 선택하여 1주일간 급여
- 사료관리 : ①전입 당일은 제한급여(반나절은 절식시킴)
②사료통은 1일 1회씩 완전히 비운다.
③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한다.
③일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 급여
④사료교체는 단계적으로 혼합하여 교체
- 환돈 : 환돈방을 만들어 격리 수용하여 개체 치료를 해준다.

농장 전체적으로 병원균에 오염된 상태이므로 돼지가 이동되고 나면 빈 돈사는 철저하게 수세소독 및 생석회 도포를 실시한 후 훈연소독을 하고 나서 입주한다. 입주시 돼지 역시 돈체소독을 시실하고 난 후에 입주한다. 농장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매일 돈사 및 주변 소독을 실시하여 오염도를 낮춰 주며,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지에게 접촉하고 있는 각종 백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누락되지 않게 백신을 접종한다.

설사병이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겠지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제2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설사병이 끝나면 보다 적극적으로 돼지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생산성이 조금이나마 향상되어 설사병으로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